

‘시험지 아줌마서 구의원으로...’ 홍미영씨 수기 <3>

3월15일 첫 후보유인물 3천부를 배포했다. 주민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잘 아는 얼굴이 나왔다”며 반가워하는 표정들이 많았고, 쓰레기통이나 길거리에 버려진 유인물은 한장도 눈에 띄지 않았다.

우려했던 여성후보라는 데 대한 거부감보다 이웃길 아줌마에 대한 친근감이 훨씬 높다는 사실에 자신감이 일었다. 주부들뿐 아니라 남성·노인·청년 등 다양한 지지층을 확인한 것도 첫 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그동안 동네 민원처리에 앞장서온 나에게 행정관료들이 호의를 가질 리 만무했다.

행정관청 고압적 태도

자료물치를 싸들고 조용한 곳을 찾아 앞집 다락방으로 뛰어들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일부터 무작위로 뽑아 조사한 유권자 2백여명에 대한 전화설문 결과를 토대로 쓰레기 수거방식·버스노선·수돗물 사정 등 생활개

잡아 3백명의 청중이 모여들었다.

내 차례는 기호 3번 최갑수(43·전 사회정화위원), 기호 5번 박철수(50·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후보에 이어 세번째였다.

두 후보 모두가 10여분만의 짧은 연설을 했다. 내가 연단에 오르자 한무리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해님여성회 어머니들, 인천지역 주민회 회원들, 해님놀이방 아이들 그리고 서울에서 응원하러 온 한명숙 회장을 비롯한 여성민우회 선후배들, 평민당 박영

“우리동네 자존심” 성원 빗발쳐

‘여성’ 거부감보단 친근한 이웃대접에 자신감

리홍보의 큰 수확이었다.

이날 밤 평가회에서는 전반적인 선거무관심 분위기 속에 자수성가한 무소속 후보 1명, 친여색의 토박이 땅부자 3명 등 남성후보 4명의 난입이 여성후보의 신전감을 돋보이게 한다고 분석하고 이튿날 1차 합동연설회에서는 여성의 이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5일 전부터 3명의 전담팀이 준비해 온 연설문은 미처 정리할 아늑해 있었다. 더구나 합동연설회 지침을 통보하러 온 동장과 동사무소 사무장 등의 고압적인 태도에서 ‘관권의 보이지 않는 견제’를 직감한 나는 초조

선 공약을 정리하는 데 온밤이 꼬박 걸렸다. 16일 아침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팩시밀리를 이용해 정치광고회사로 연설문 원고를 보내 자문을 청했다. 회답은 ‘여고 학생회장 선거연설문 같다’는 것이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눈앞이 캄캄했다. 유세 2시간 전 정치광고회사의 도움으로 완성된 최종연설문을 들고 마이크를 찾아 동네 소성교회로 달려갔을 때는 한 차례 연습할 여유밖에 없었다.

3월16일 오후 3시, 1차 유세장인 심장국민학교 운동장에는 새벽부터 내리던 빗발이 멈춘 대신 새찬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어림

숙 부총재 등등 낯익은 얼굴들을 확인하자 비로소 연설문이 눈에 들어왔다.

막장 응원부대 성원속에

“쓰레기 처리를 문진수거방식으로 바꿔 새벽부터 종소리를 쫓아 언덕길을 오르내려야 하는 주부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고...바로 어제도 제 큰딸의 안경을 부서지게 한 콩나물버스 문제를 개선하고 노인정·탁아소도 늘려가겠습니다.”

첫 유세 뒤 우리는 곳곳에서 승리의 예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여성을 뽑아야 해.” “여자가 똑똑하고 아무진 게 일 잘



유세 잘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거리에 나서면 먼저 달려와 손 붙잡고 인사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하겠던데.” “1번이 제일 낯지.” 운동원들이 수집해온 골목 좌담회 여론들은 한결같이 희망적이었다.

꼬깃꼬깃 구겨진 1만원짜리 한장을 슬며시 놓고 가는 낯선 주부를 비롯해 인천과 서울에서 보내온 몇천원부터 10만원 단위까지 선거운동기금이 쉽게 1백만원 단위를 넘어섰다.

석유배달 청년, 세탁소 아저씨 등 내가 모르고 있던 자원운동원들이 “우리 동네의 자존심을 보여주겠다”며 발벗고 나섰다. 요구르트 아줌마는 매일 수습개씩 음료를 제공했고, 떡과 김치·라면을 날라오는 정성의 손길도 끊이지 않았다.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아침 7시30분부터 8시10분 사이 버스·택시승강장, 은행 앞 등 6곳에서 집중배포한 전략이 적중, 후보유인물 1만6천여장은 이를 만에 뚫이 났다.

비방 흑색선전에 긴장

모두들 성급한 승리감에 빠져있던 18일 저녁, 평소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 첫 비방 제보가 들어왔다. “미장원을 경영하고 전라도 출신이며 저분한 구시장 골목에서 산다”는 등 주로 중산층의 반감을 노린 듯한 것이었다.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었지만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